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성경말씀: 롬8:1-17

요즘 로마서 4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고 있다. 사람의 죄,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 열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구원받은 뒤 성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람의 약점 중 하나

1.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해도 문제없다. 바울의 대답: 아니다. 로마서 6장
2.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구원 뒤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힌다. 율법주의의 희생자

지난 주 로마서 7장, 답은 아니다. 1. 우리는 율법을 향해 죽었다(7:1-6), 2. 율법은 죄가 아니다, 선한 것이다(7-13), 3. 내가 문제다(14-24), 두 개의 본성, 능력이 없다. 4. 그래서 영적 파산을 겪는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 비결(24-25), 24절,

우리는 답해야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나는 25절의 사람 아닌가? 심판석에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나? < >

로마서 8장 개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생겨야 한다. 급진적인 변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마음대로 산다. 불가능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약하지 않는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보여 준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 로마서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spirit(사람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21번, 롬1-7장까지 겨우 4번, 9-16장에는 4번, 총 29번, 이중 21번이 8장에 나옴

하나님의 대답: 사망의 몸, 죄의 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몸의 해결책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사역: 1. 구원(1-2), 2. 성화(3), 3.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9-14),

4. 아들임을 확증(15). 로마서 8장은 원칙을 가르쳐 준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는 12-16장

정죄함이 없다(1-4)

로마서 7장 뒷부분의 바울을 보라.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안 돼서 죽을 지경, 고통, 번민

1. 원치 않는데 죄를 짓는다. 2. 이 죄를 어떻게 치우는가? 누가 구출하는가? 요약 24절(must) 8장에 들어오면서 환희의 목소리, 1-11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1절의 선언: 정죄함이 없다. 죄의 양이 문제가 아니다. 죄를 털 짓고 더 짓고의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이래서 영원한 지옥 탈출

다시 강조: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지을 수도 없다. 그래도 짓는다. 그러나 정죄함 없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는가? 특정 어떤 사람(1절 후반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우리의 죽음(전가), 우리의 모든 죄들 일시에 제거, 우리의 옛 사람 처형, 구원 이후 옛 본성에 의해 짓는 모든 죄 제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죄의 면허장이 아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

법의 문제: 2절은 대단히 중요하다.

로마 제국의 특징: 법, 그래서 바울은 법을 이야기한다. 법: 규칙, 원리

열역학 제1법칙: 질량, 에너지는 생성되지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만 된다. 어디나 통한다.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법칙,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

중력의 법칙의 결과: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진다. 뉴턴의 사과나무 실험

모든 것은 그대로 두면 떨어진다.

1. 그런데 누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떨어진다.

2. 심지어 그것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한다.

3. 즉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작용하면 중력을 극복할 수 있다. 아예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구원도 같은 원리이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법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나타나면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를 들어 올리고 엄청난 힘으로 천국으로 데려간다.

중력 안 보인다. 비행기의 추진력 안 보인다. 그런데 그 결과는 확실하다. 타기만 하면 뉴욕에 간다.

죄와 사망의 법 안 보인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런데 타면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생긴다. 이것은 법칙의 문제이다. 만유인력, 열역학 법칙 전 공간에 적용된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3),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심

그 결과: 율법의 요구 조건 만족(4)

이런 법의 시스템이 어느 종교에 있는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놀랄 만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알고 있던 유대교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과 영광에 미쳐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신비에 놀라서, 마귀가 인간을 농락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로

이용하시며 마귀나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상상할 승 벗던 일을 하심, 처녀 탄생, 성육신, 십자가 대신 속죄, 부활, 그리고는 신약 시대에 처음 하신 이레: 성령님의 침례,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의 성취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5-8)

5-11절은 4절 설명

6절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AM라디오(진폭 변조), FM 라디오(주파수 변조)

AM 라디오 수신기로는 절대로 FM 방송을 들을 수 없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고전2:14).

아예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른다. FM 주파수가 있는 것도 모른다.

결론(8):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헛수고

성령님의 힘으로 산다(9-11).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9)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9):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야 한다.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영이 계시는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또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 안의 성령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반드시 하게 된다. 변화가 생긴다(롬6:1-2).

우리의 죄 문제: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심으로 해결(10)

우리의 의 문제: 우리 안의 성령님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다(10).

속4:6,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며 의를 이루게 하신다 (11).

그러므로 바울의 문제 해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성령님의 침례와 내주 사역으로 죄와 의 문제 해결 이 전체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12-17)

1-11절의 원리를 삶에 적용한다.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 없다. 원칙대로 살아라.

1. 성령님께 순종하여 몸의 행실을 적극적으로 죽인다(12-13).

2. 어려움을 당하면, 죄를 지을 상황, 우리의 신분을 기억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구한다 (14-15).

3.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 여기서 치욕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16-17). 질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의를 이루신다. 법이 바뀌었다.